고2 문학
동아

1(1)(1)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 녘 Ⓐ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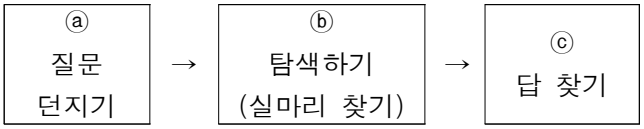
1. <보기>의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작가에게 공간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상적 공간(삶을 사는 공간)', '작업 공간(창작의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정서 표출의 공간)', '상상의 공간', '공적 책무의 공간(시인으로서의 역할 인식)', '성찰의 공간(문제 인식과 탐색)', '실존의 공간(작가로서의 인식)'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공간'은 앞서 언급한 어느 하나만으로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① 상상력 부족이 문제라고 느끼고 '남대문 시장'에서 비로소 '상상의 공간'을 펼치므로 그곳이 곧 '창작의 공간'이군.
② 좁은 '창작의 공간'에서 시를 창작하지 못해 문제라고 보는 화자에게 '무교동 ~ 남대문 시장'은 확장된 '창작의 공간'이겠군.
③ 화자는 모름지기 서민의 삶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길을 나섰으므로, 거리와 시장은 '공적 책무의 공간'이 되겠군.
④ '무교동 ~ 서울역'은 시인의 자격에 대해 생각하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실존의 공간'이자 '심리적 공간'이겠군.
⑤ '남대문 시장'은 서민들의 일상에 있는 공간인 한편 화자에게는 시인의 자격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므로 '성찰의 공간'이자 '실존의 공간'이겠군.

2. <보기>를 활용하여 이 시의 구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1행은 시상을 떠올리게 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2행은 겸손의 표현으로서 시의 끝부분에서 드러낸 ⓒ와 의미가 같다.
③ 3~5행은 공간 이동의 과정이자 탐색의 과정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6행의 '생각나고 있었다'는 실마리 찾기로 ⓑ와 ⓒ를 연결해 준다.
⑤ 7~15행은 ⓐ에 대해 찾은 깨달음이자 성찰을 담은 내용이므로 ⓒ에 해당한다.

3.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갯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胡麻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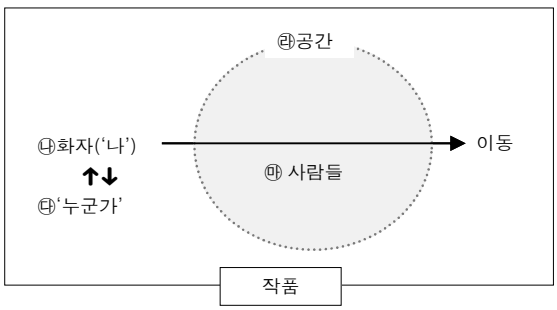
• 노신: 루쉰. 중국의 작가로 대표작으로「아큐정전」이 있음.

– 김광균, <노신>

①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시인'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다.
② 이 시의 '사람들'과 <보기>의 '노신'은 모두 화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다.
③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④ 이 시의 '시장'이라는 공간과, <보기>의 '밤'이라는 시간은 화자의 성찰에 영향을 미친다.
⑤ 이 시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의식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보기>와 같이 도식해 보았다.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① ㉮와 ㉯를 동일하게 본다면 시 내용이 작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와의 대화는 ㉯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는 ㉱를 돌아다니는 동안 ㉰의 물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는 ㉲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는 ㉲의 모습에서 고귀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5. 이 시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보기>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고귀한 삶이 뭐냐고
나는 철학자가 아니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돌아간 시장에서
옆 좌판의 김 씨, 박 씨와
남은 음식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일 때 생각이 났다.
어린 자식 떠올리며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남을 속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① 이웃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유대감도 담아 보려고 해.
②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하고도 준엄한 반성을 형상화 할거야.
③ 원작에 나타난 시상 전개의 기본적인 틀을 살려서 써 볼까 해.
④ 원작의 화자가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를 써 보면 어떨까?
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그대로 유지할 거야.

6. <보기>를 참조하여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한 편의 시는 시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파격(破格)의 순간들, 혹은 일상 어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외적이라고 해야 할 대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체로 시인의 의도적 배려의 산물인데, 시가 산문처럼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 특유의 '시적 긴장(tension)'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① '시가 뭐냐'는 질문은 첫 부분부터 의문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면서, 도치를 통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나는 시인이 못됨'은 반어적 표현으로 독자의 고정 관념을 깨트리면서 참신한 긴장감을 획득하고 있다.
③ 생각나고 있었다'라는 현재 진행형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깨달음이 찾아온 그 순간의 특별함이 부각되고 있다.
④ 이 대목은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나와야 할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대뜸 튀어나온 이 대목의 도치법이 독자의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⑤ '전부' 혹은 '총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인 '알파와 오메가'에서 뒷부분을 삭제하고 '알파'만을 남겨 둠으로써 알파의 원래 뜻('처음')을 상기시키면서 독자의 의표를 찌르고 있다.

7. <보기>는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동선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적절하지 <u>않은</u> 해석은?

<보기>
누군가와의 대화 →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을 지남 → 서울역 앞을 걸음 →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음

① 화자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②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은 서울의 주요 공간으로, 화자가 발 딛고 사는 가까운 공감을 뜻한다.
③ 서울역 앞은 바로 앞에 지난 서울의 주요 공간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④ 남대문 시장에서 화자는 다른 이들의 고생스러운 삶에 연민을 느낀다.
⑤ 화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자신 스스로 깨달음과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8.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 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 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한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 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① 화자는 일상적 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화자는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⑤ 화지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

9. 이 시와 <보기>를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랠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랠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랠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랠 부르며
이 겨울밤 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①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보기>와 달리 이 시에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변주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10. 이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수유리라고는 하지만 도봉산이 바로 지척(咫尺)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한복판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훌륭하다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 벌 떼들, 꿀벌 떼들, 우리 집 뜨락에 어제오늘 가득하다 잔치 잔치 벌였다 한 그루 활짝 핀, 그래, 만개(滿開)의 산수유, 노오란 꽃숭어리들에 꽃숭어리마다에 노오랗게 취해! 진종일 환하다 나도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두근거렸다 잉잉거렸다 이건 노동이랄 수만은 없다 꽃이다! 열려 있는 것을 마다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전을 뒤적거려보니 꿀벌들은 꿀을 찾아 11킬로미터 이상 왕복(往復)한다고 했다 그래, 왕복이다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그래, 무엇이든 왕복일 수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 그런 특수 통신망을 갖게 되지 광(光)케이블을 갖게 되지 그런 아직도 유효해! 한 가닥 염장 미역으로 새카맣게 웅크려 있던 사랑아, 다시 노오랗게 사랑을 채밀하고 싶은 사람아, 그건 아직도 유효해!
– 정진규, <산수유–알1>

① 화자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물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담겨 있다.
②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③ 화자는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④ 화자가 있는 곳 근처를 둘러보며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⑤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고2 문학
동아

1(1)(1)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내신 암기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작품 개관

갈래	현대시, ( )시, ( )시
성격	( )적, ( )적
제재	'시가 뭐냐'에 대한 ( )
주제	시의 ( )와 시인의 ( )에 대한 성찰
특징	• '시'에 대한 ( )의 답을 구하는 ( )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 )의 이동과 ( )의 흐름이 나타남.

2. 작품 구성

1행~2행	'시가 뭐냐'는 ( )과 이에 대한 '나'의 ( )
3행~6행	( )에 대한 답을 ( )하는 과정
7행~15행	'나'가 ( )하는 ( )한 시인

3. 시적 공간의 의미

공간	의미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	- 사람들이 ( )하게 지나다니는 곳 - 화자가 ( )와 ( )에 대해 ( )하게 생각하며 지나간 공간
남대문 시장 안	- 어렵지만 ( ) 일하는 사람들이 ( )하는 곳 - 화자가 ( )에 대한 ( )을 얻게 된 공간

4. '그런 사람들'의 의미

'그런 사람들'

( ) 되어도 순하고 ( )하고 맘 좋고 ( )이 있으므로 ( )롭게 사는 사람들

↓

'그런 사람들'의 가치

- 세상의 ( )
- ( )한 인류
- 영원한 ( )
- ( )한 시인

↓

'그런 사람들'이 ( )한 시인이며 그들의 삶 ( )가 바로 시임.

5. 내용 확인 퀴즈

1) 이 시의 화자는 누군가로부터 ( )는 질문을 받았다.

2)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 )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3) 이 시에서는 ( )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부각하였다.

6. O, X 퀴즈

1) 이 시는 시간의 흐름 및 장소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O , X)

2) 이 시의 화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O , X)

3) 이 시에서 '남대문 시장'은 화자가 고민하던 답을 찾는 공간이다. (O , X)

4) 이 시의 화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에서 '시인'의 모습을 찾게 된다.
(O , X)

정답 및 해설

수능형 문제

1) <답> ⑤
남대문 시장은 시장 사람들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자는 시인이 어떤 삶의 자세로 노래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문제 인식과 탐색이 이루어지는 '성찰의 공간'이자 작가로서의 인식을 드러내는 '실존의 공간'이 된다.

2) <답> ②
2행은 시가 뭐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 준다. 건강하고 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인의 진정한 태도를 발견하는 시의 끝부분, 즉 ⓒ와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3) <답> ③
<보기>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노신을 떠올리며 굳세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봉리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①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시인이 못 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시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시인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시인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시에서는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시와 시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보기>에서는 노신을 떠올리면서 세상을 굳세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시장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보기>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⑤ <보기>의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갯맡'에서 화자가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면모는 드러나지 않는다.

4) <답> ③
화자는 '누군가'의 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착하고 인정 있게 사는 사람들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한다. 이 때 ㉮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나'에게 시인으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③에서처럼 ㉮를 이동하여 ㉰의 물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5) <답> ②
<보기>에는 성실하게 사는 이웃과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준엄한 반성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

6) <답> ②
'나는 시인이 못됨'은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겸손한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7) <답> ④
화자는 빈대떡을 먹으면서 남대문 시장 안에서 열정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가 됨을 깨닫고 있다.

8) <답> ②
이 시의 화자는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엄청나게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박수근의 그림 '강변'을 보다가 박수근의 삶을 떠올린다. '나'가 떠올린 박수근의 삶은 외출하기 전에 마당에 널린 빨래를 개는 다정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화자 역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박수근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9) <답> ③
이 작품에서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나 대조적인 이미지의 소재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보기>의 경우 대조적인 색채의 시어 '(눈'과 '밤')가 제시되어 있지만 둘 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소재이기 때문에 대조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0) <답> ④
<보기>의 경우 화자는 자신의 집에 핀 '산수유'에 '꿀벌'들이 꼬이는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있고, 이 시의 경우 화자가 직접 서울을 돌아다니며 시인이라는 직업의 위치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내신 암기

1) <답>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경험적
제재	'시가 뭐냐'에 대한 탐색
주제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에 대한 성찰
특징	• '시'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남.

2) <답>

1행~2행	'시가 뭐냐'는 물음과 이에 대한 '나'의 대답
3행~6행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
7행~15행	'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

3) <답>

공간	의미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	-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나다니는 곳 - 화자가 시와 시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지나간 공간
남대문 시장 안	-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 - 화자가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공간

4) <답>

'그런 사람들'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
'그런 사람들'의 가치
• 세상의 알파 • 고귀한 인류 • 영원한 광명 • 진정한 시인
↓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며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시임.

5) <답>

'시가 뭐냐'/ 시인/ 열거

6) <답>

O/ ×/ O/ O